

관광 문화

全南日報

2012년 12월 12일 (수)
12면 기획

영산강 고대문화권의 개발 방안 고대묘제 전남 세계 최고... 활용을

■이승욱 전남도 관광문화국장

기원전후 한강에서 영산강 유역까지 지배한 마한은 54개 소국을 거느린 왕국이었다. 동북아 문화역사 교류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지금도 유적과 역사의 현장이 곳곳에 남아 있다.

이 시점에서 열리는 '마한 역사교과서 등재 영산강 고대문화 활용방안 학술심포지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역사와 현장에 대한 교과서 등재는 정사(正史)의 확립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현장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기초 지표조사와 학술조사, 유적 분포지도 조사,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 왔다.

1995~1996년에는 '전남의 고대묘제'에 대한 종합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결과, 고인돌은 광주·전남에 2만여기가 분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전국 최밀집·세계 최밀집 지역으로 평가됐고 마침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다.

1999년~2000년에는 영산강유역 고대유적 보존 활용방안 학술조사를 통해 30여개소의 고분(군)을 도 문화재로 지정했다. 이시기에 측량조사를 했거나 지정된 고분이 바로 최근 발굴조사에서 귀중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고흥의 안동고분과 야막 고분 등이다.

또 나주 반남고분군, 나주 복암리 고분군, 자미산성과 회진토성 발굴조사는 큰 성과를 거뒀다.

나주 복암리 고분군은 전남도지정문화재에서 국가 사적으로 승격 지정됐고 고분전시관도 건립 중이다. 나주 오량동의 토기가마 유적 조사는 영산강유역 대형옹관고분의 실체를 증명해주는 귀중한 유적으로 전남도 중요문화재 가 지정, 국가중요문화재(사적) 가 지정 절차를 거쳐 국가 사적에 지정됐다.

특히 영산강유역의 대형 옹관고분, 특히 나주 반남고분군, 영암 시종 고분군, 나주 복암리 고분군 등을 통해 고대국가 성립단계의 강력한 통치체계를 갖춘 왕국이 영산강을 중심으로 존재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마한이라는 역사 위에 살아가고 있다. 마한의 역사를 증명하기 위한 첫 단계가 마한을 역사교과서에 등재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꾸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적극 지원해 갈 것을 다짐한다.



9.8 X 23.3 cm

光州日報

2012년 12월 12일 (수)
18면 지역

전남도체육회 성금 모아 선수·직원에게 전달



전남도체육회가 11일 목포 체육회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모은 190만 원의 성금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선수 3명과 암으로 투병중인 임완 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에게 전달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10.2 X 7.0 cm

광남일보

2012년 12월 12일 (수)
18면 인물

도체육회, 불우 환경 꿈나무 위문 격려

전라남도체육회(전승현 사무처장)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를 목표로 뛰고 있는 지역 꿈나무들에게 희망의 선물을 전달했다.



전남도체육회는 11일 오전 11시 전승현 사무처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2년도 사무처 직원 사회공익사업' 행사를 열었다.

지난 2008년 이후 올해로 5회째인 이 행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곳곳에서 운동하며 꿈을 이어가는 선수들을 도와주자는 뜻에서 전남체육회 직원들이 십시일반 걷은 190여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올해는 수영 김민웅(전남제일고 2년), 볼링 박휘향(고흥산업과학교

2년), 조정 김철우(장성 황룡중 1년) 등 3명의 선수가 각각 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또 전남체육회는 위암 투병중인 임완 전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에게 위로금과 격려품을 전달했다.

김민웅은 "뜻밖의 장학금을 받아 힘이 절로 난다"며 "전남체육회 직원들의 정성과 마음을 깊이 새겨 운동에 전념해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소연 기자 sy passion@

11.1 X 12.3 cm

전남도체육회 사무처, 사회공익사업 진행

꿈나무 3명에 장학금·원로 체육인 위문



전남도체육회(전승현 사무처장)가 불우한 가정환경을 극복하며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로서의 성장을 꿈꾸는 3명의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줬다.

또한 그동안 전남체육 진흥에 공헌한 원로 체육인 중 투병중인 임원에 대한 위문으로 전남체육 한가족으로서의 따뜻한 마음도 공유했다.

전남도체육회는 11일 오전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사무처에서 전승현 사무처장을 포함한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2년도 사무처 직원 사회공익사업'을 실시했다. <사진>

선수들에게는 각각 4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고, 투병중인 원로 체육인에게는 위로금과 격려품을 전달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여 올해로 전남도체육회의 5회째 사회공익사업 수혜 대상자들은 수영 김민웅(전남제일고 2년), 볼링 박휘향(고흥산업과학고 2년), 조정 김철우(장성 황룡중 1년) 등 선수 3명과 함께 임원 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 등이다.

선수 3명은 전남도체육회가

가맹경기단체별로 불우환경 꿈나무선수를 파악한 상황에서 가장 힘겨운 가정환경을 극복해가는 선수들로 파악돼 격려금을 전달받는 기회를 갖게 됐다. 임완전 사무처장은 현재 위암 투병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수영 김민웅은 국가대표 성장이 확실시되는 전남 수영 대들보로 통하고 있다.

볼링 박휘향은 93제전에서 금메달 1개(3인조전)와 동메달 1개(5인조전)를 획득했다.

조정 김철우는 현재 중학 1년생으로 2014년 중학 3학년때 전국 제패가 점쳐지고 있다.

전남도체육회는 봉사활동의 의미를 확대하자는 직원들의 공감대를 반영, 봉사활동 전액을 십시일반 함께 마련했다.

전승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현재 운동에 입문한 선수 대부분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선수들이라는 점에 착안해 봉사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직원들이 십시일반 각출에 적극 동참해준데 대해 더없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광호 기자 sgh@namdodnews.com>

전남매일

2012년 12월 12일 (수)
12면 스포츠



전남도체육회는 11일 오전 사무처에서 도내 스포츠 꿈나무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전남도체육회, 장학금·투병 원로 위문

전라남도체육회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스포츠 꿈나무에게 장학금을, 투병중인 원로 체육인에게 성금을 전달, 연말 세밑을 훈훈하게 달궜다.

전남도체육회는 11일 사무처에서 전남제일고 김민웅(2년·수영), 고흥산업과학고 박휘향(2년·볼링), 황룡중 김철우(1년·조정)에게 각각 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위암 투병중인 임원 전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에게는 위로금과 격려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도체육회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무처 직원 사회공익사업으로 전 직원들이 십시일반 각출, 190여만원을 모아 이뤄졌다.

장학금 혜택을 받은 선수들은 전남도체육회가 가맹경기단체별로 불우환경 꿈나무선수를 파악한 결과 힘겨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운동하는 이들이다.

김민웅은 국가대표 성장이 확실시되는 전남 수영의 대들보다. 생활보호대상자인 김민웅은 어려운 환경에도 훈련에 매진, 수구 및 경영에서 뛰

어난 성적을 거양했다.

지난 2010년 전국소년체전 2관왕을 달성했으며 지난 10월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수확했다.

박휘향은 부모 이혼과 어머니의 암별세 등 가정정권이 최악인 상태에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불려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93제전에서 금메달 1개(3인조전)와 동메달 1개(5인조전)를 획득하는 등 역시 국가대표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주다.

김철우 역시 부모의 이혼 후 할머니, 남동생과 생활하고 있다. 특히 어머니와는 연락 두절상태이며 학교에서 훈련장까지 매일 30분씩 걸어서 이동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있다. 현재 실력으로 볼 때 2014년 중학교 3학년때 전국 제패가 예상된다.

김민웅은 "뜻밖의 장학금을 받게 돼 힘이 절로 난다"며 "전남체육회 직원분들의 정성과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운동에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진화 기자>

11.0 X 21.5 cm